불교대학을 찾아서

② 부산불교 교육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들이 월드컵 기간동안 시내를 환하게 밝힐 연등을 달고 있다.

포교사 최다배출, 각계 각층에서 맹활약
학사관리 엄격-석달마다 사정 미달자 제적
불교회관에 校舍…빔 프로젝트등 첨단시설

불교교육은 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부산불교의 자양분이요 요람이다.

국내 불교 교육기관중 조계종 포교사를 최다 배출시킨 부산불교교육대학. 1982년 설립 이후 총 810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불교 교육의 명문이다.

1991년, 이하우 학장 취임 이후 교육의 기틀을 다지게 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기초교리과정, 불교학과, 경전연구반, 수화반 등 전과정에서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이 수두룩하다.

불심 최고 도시로 통하는 부산불교의 중심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를 비롯 부산불교보현회, 부산시경 경불회, 한빛은행불자회 등 크고 작은 신행단체의 장으로 활동하는 졸업생이 많다. 이것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나왔으면 틀림없다'는 명제가 통할 만큼 학사관리가 엄격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과과정외에 수련회, 야외법회, 봉사활동 등을 좋아하여 3개월마다 사정을 거쳐 미달자는 과감하게 재적시키므로 입학생의 50%이상이 탈락될 정도. 수강생의 70% 이상을 거사들이 차지해 보살들이 많은 다른 불교교육기관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부산불교교육대학의 특징이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졸업생들의 긍지 또한 매우 높아 졸업생들의 기수별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각 기수별로 보훈병원, 통합병원, 항만사령부 등의 법회를 이끌고 있는가 하면 수화반 출신의 심여희는 불교행사의 수화통역과 농아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이같은 원만한 신행과 봉사활동 외에도 부설기관인 〈환희지 문화원〉과 〈환희지 사회복지원〉을 통해 전통문화확산과 복지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합창단, 사물놀이패, 다도, 매주 3회 극빈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등은 교리와 실천이 조화된 교육 방침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뛰어난 강사진, 엄격한 학사관리로 올해 조계종 불교전문교육기관 중 최고 등급인 갑종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법, 도생, 정진의 교훈아래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00년 학사를 부산시 청옆 부산불교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150평 규모에 35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에 컴퓨터로 강의하는 빔프로젝트 시스템, 초대형 프로젝션 TV 등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불제자 양성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하우 학장은 "문교부 인가를 받은 정규미니불교대학으로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며 "불교학과, 간호학과를 비롯 전통적인 학과를 개설해 불법을 생활 속에서 널리 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야채행상하며 무료급식봉사
12기 재학생 조동조거사

"정법을 배우고 싶어 등록했어요. 그리고 배운만큼 실천하려고 무료급식에도 빠지지 않고 있지요."

부산불교교육대학 12기 불교학과에 재학중인 조동조(52 · 사진) 거사는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 봉사에 빠지는 법이 없다. 차량 야채 행상을 하고 있는 조 거사는 가까운 노인정을 찾아 적은 양의 야채지만 정성껏 보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조 거사는 "재산과 건강을 잃은 고통을 겪은 만큼 불법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도 크다"고 말했다.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뇌성마비 자식 보살피는 실향민 할머니

나 죽으면 아들놈은…

"영감님은 나보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어. 순규 놈은 잘 보살필테니 편히 가라고. 그러면서도 때 되면 밥 떠 먹여 주더라구. 살아야 한다고…. 그러던 영감이 먼저 가다니…. 나 죽으면 아들놈은 어떡한다지? 아들놈하고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한날한시에 죽으면, 아들놈 혼자 남지는 않을 거잖아…."

실향민 장정옥(72) 할머니. 마흔이 다 된 선천성 뇌성마비 아들 최순규(39) 씨와 서울 면목동 14평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10년 전 중풍을 앓으면서 누워 지내던 장 할머니가 6년 만에 그나마 앉아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 된 사연부터 풀어놓는다.

10년전 중풍발병 앉아서 생활
이웃도움으로 생활보호 혜택

◇들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 최순규 씨.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갑자기 쓰러져 누워 지낼 때, 영감님이 나하고 아들놈 수발 다 들었지. 동네 사람들은 다들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난리들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영감도 영감이지만 아들놈을 두고 차마 죽을 수는 없었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

이렇게 장 할머니의 와병 생활이 이어지면서 살림은 전적으로 남편 최 씨의 몫이 됐다. 낮에는 공공근로에 나갔고, 밤에는 두 모자의 뒷수발을 다 들어야 했다. 급기야 북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편 최 씨는 술로 지내다 결국 4년전 세상을 떠났다.

남편 최 씨가 떠난 빈 자리. 그 자리에 뇌성마비 아들 최 씨가 자리 잡았다. 아들 최 씨가 장애인 판정을 받기까지의 사연도 참 기구하다. 집밖 출입을 전혀 못하던 장 할머니가 중랑보건소에 민원편지를 보냈다.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된 보건소에서는 직접 출장을 나와 아들 최 씨의 증세를 진단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내주었다. 하긴 두 모자가 비좁은 방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 최 씨가 '호된 바깥나들이'를 한 적도 있다. 최 씨가 8살 때, 장 할머니가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4일간 연락이 없었다.

"초상난 집처럼 영감님하고 4일 동안 밤낮으로 통곡한 채 지냈었지.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미아를 찾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더군. 거기에 아들놈의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다시 찾았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구."

부채를 집어든 장 할머니의 오른손이 계속 떨린다. 한 마디 내뱉는 말조차 힘겨워 기진했다.

이들 두 모자가 이 정도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3년 전이다. 바깥출입이 어렵다보니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조차도 불가능했다. 어렵게 이웃의 도움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 지원금 3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아파트 임대료,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로 20만원을 빼고 나면, 반찬비는 커녕 병원비도 마련하기 힘들다.

남편 생각과 아들 최 씨 생각만으로도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쁜 장 할머니.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장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면목도시개발아파트 3동 413호

전화번호 : 02-439-2460

후원계좌 : 한빛은행 139-082921-12-101(예금주 장정옥)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1〉 히디가웅

카투만두市 가장 오래된 동네…곳곳에 주막
불탑 · 신전 · 보리수 많고 축제 계속 이어져

지난 2월, 우리는 또 다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의 낯선 골목과 낯익은 골목을 종일 걸어다녔습니다. 어떤 집 울밑에는 복사꽃이 피었고, 어떤 집 유리창은 먼지가 두껍게 붙어 있었습니다. 버려도 될 것을 여기저기 쌓아놓은 마당도 있었고, 컴컴한 골방에서 기침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나간 집은 휑뎅그렁했고, 나갈 집 안방에 걸어 놓은 주인 부부 사진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한 집을 보고 또 한 집을 보러 골목에 나설 때마다 따가운 햇살 속에 뽀얀 먼지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낸 마을이 하디가웅입니다. 카트만두 시내의 여러 동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라는 하디가웅은 옛 문화를 말해 주는 불탑과 신전들과 보리수가 유난히 많으며 마을 전통 축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 같은 대포집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박혀 있어서 가난이나 고단한 노동이나 너무 늙어서 노동마저 없는 권태에 지친 주민들이 허리 구부리고 그 작은 주막집 문을 드나듭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술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이 동네이며, 한 때는 우범 지대로 손꼽기도 했다는 이 가난한 동네의 허름한 집에 세 들어 살기로 결정한 것은 주변에 보리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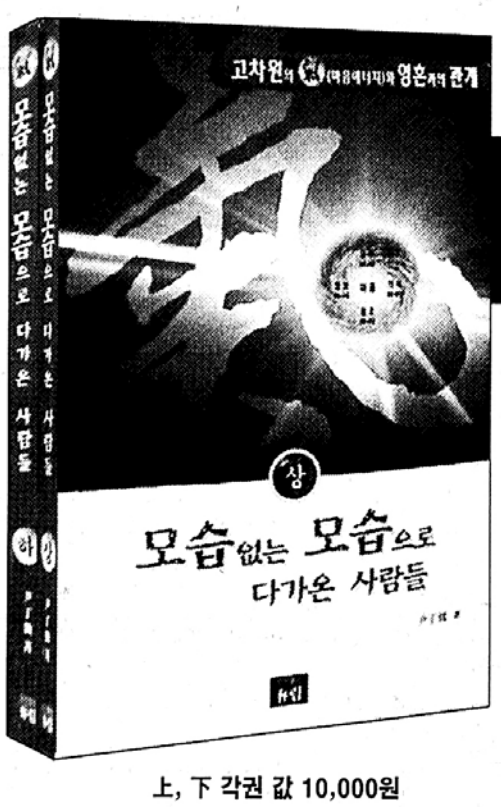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삼일절 날에 이사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온 마을 꽃나무들과 화초들은 벌써부터 꽃을 피워서 벌 나비들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마을의 보리수들은 겨우내 지다 만 낙엽을 마저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새잎을 다는 작은 풀과 작은 나무들을 위한 큰 나무의 배려였습니다. 만일 큰 나무들이 먼저 새잎을 달아버리면 그 밑의 작은 나무들과 작은 풀들은 햇빛을 못 봐서 싹을 틔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은 보리수에게 날마다 경건한 기도를 바칩니다. 경찰관도, 품팔이나 청소부도 보리수 앞을 지나갈 때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머리 숙이고 잠시 기도를 하거나 묵념을 합니다.

프로필 김 홍 성 coolwind@wlink.com.np 1954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월간 '나그네' 등의 창간 작업에 동참했고, 월간 '사람과 산' 편집장을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기슭을 떠돈 지 7년에 접어들었다. 1985년 동인지 〈反詩〉 8집을 통해 등단, 1991년에 시집 〈먼지 속에 꽃씨 하나〉를 냈으며 〈히말라야 기행〉 〈방랑수첩〉 등의 수필집도 냈다.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 거주하면서 히말라야를 무대로 한 소설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원격(遠隔)으로 1~2초에 하고 있는 초능력자 윤정주씨의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 이야기

우리의 氣(마음에너지)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래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上,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 첨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